**마0311(2) Note**

**◇회개를 누가 합니까?**

◇회개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 회개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회개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세례 없이는 우리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찌든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아야 회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얼굴에 묻은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남이 내 얼굴에 묻은 것을 보고 말해줘야 우리는 그것을 닦아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남이 없이, 통증을 느끼지 않고 우리가 회개할 수 없으며, 거듭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알려주시는 데도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안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며, 회개할 수 있는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상태에서 회개하고 안하고는 우리의 몫입니다,

통증을 느끼고도 병원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가는 사람도 있듯이 말입니다.